

일부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추진 빈축

광주 북구는 3년 연속...서구·광산·보성도 추진

전국 상당수 지방의회가 각 자치단체 재정 상황을 감안해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를 동결하려는 가운데 광주·전남 일부 지방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추진,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13일 광주·전남지역 각 자치단체에 따르면 광주 서구의회는 5% 인상된 3220만 원으로 의정비 인상을 추진 중이며, 광산구의 회도 올해 3476만 원에서 0.3% 오른 3488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북구의회도 내년 의정비를 조정하기로 하고 의정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으나 조정 의견은 사실상 인상 요청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구의회는 지난 2008년 6.5%, 지난해 5.5%를 인상한 바 있어 올해 인상이 확정되면 3년 연속 인상하는 셈이다.

특히 북구의회는 지난해 인상 당시 실시된 주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500명)의 77%가 현 의정비가 적절 또는 많다고 답했음에도 인상을 강행, 원성을 사기도 했다.

전남에서는 보성군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고려 중이며, 3년 연속 의정비를 동결했던 완도군의회도 집행부에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안군은 집행부 쪽에서 동결로 건의했는데 의회에서 이를 받아들일지는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다.

전남도의회는 오는 15일 간담회나 의원총회를 열어 의정비 인상 여부를 논의할 계획인데 동결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도의회는 현재 광역·기초의원들이 지급받은 의정비 산정방식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이 문제를 전국 시도 의장협의

회 공동 과제로 정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는 입장이다. 또 광주시의회는 오는 15일 의원 간담회를 통해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데 일부 의원들이 동결을 주장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광주에서는 의정비가 가장 적은 동구 의회가 2년 연속 동결을 결정했고 올해 의정비를 대폭 올렸던 남구는 내년에는 동결하기로 했다.

또 전남에서는 여수·화순·담양·강진·장흥·구례·순천·광양이 모두 동결했고, 곡성과 함평 등은 동결로 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생생 자치 광주시 간부회의

“버스정류장 안내기 디자인 확정? 어떻게 결정됐는지 나도 몰랐다”

강운태 광주시장이 13일 광주시 간부 회의에서 전문가뿐만이 아닌 일반인의 눈높이에도 맞는 ‘도시 디자인’과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 대처 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도시 디자인의 경우 결정된 뒤 수정이 어려운 만큼 장기간 심도 높은 논의과정을 거쳐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간부회의에서 기획조정실은 민선 5기 주요 현안사업 24건 관리 추진, 문화관광체육정책실은 다음달 1일부터 개최되는 제4회 광주국제공연예술제 개최, 경제산업정책실은 한국광기술원 등 연구지원기관의 기업유치 강화 및 지역 내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 규제 등을 주로 보고했다.

무등산국립공원 지정과 관련 15일 시민공청회를 갖는다는 환경생태국의 보고에 강 시장은 “국립공원 지정의 장점을 잘 설명하는 것과 지정된 다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핵심”이라며 “시민들의 정서를 감안하면 광주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공동관리하는 체제가 어울릴 것”이라고 조언했다.

광역버스정류장 안내기(BIS) 구축을 위해 버스정류장 안내기의 디자인을 지난 6일 확정해 곧 설치할 예정이라는 시민과 통곡의 보고에 강 시장은 ‘기계적인 도시

디자인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시장은 “한 번 설치해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결정될 때까지 다양한 과정을 거쳐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전문가 눈도 중요하지만 일반인의 시각도 중요하며, 디자인센터에도 문의 해보는 등 치밀하고 장기간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 시장은 “어떻게 결정됐는지 나도 몰랐다”며 관련 부서의 업무태도를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강 시장은 또 민원과 민원인을 대하는 공식자의 태도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거나 가로 등이 없어 불편하다는 민원 등의 처리결과를 보면 조처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실감장이 “그렇게 조처한 것을 확인했다”고 답하자 “민원을 받으면 민원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설명해주고 사후까지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주말을 이용해 광주비엔날레 만인도+1 현장을 방문한 강 시장은 “민원도 다녀왔다는 강 시장은 “문화동 전체가 지방자치 원형이고, 공동체의 표본”이라며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동네를 가꾸고 있으며 91개 전 동이 배워야 한다”고 극찬하기도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이낙연·국창근 민주 도당위원장 출마

17일 경선 앞두고 준비 돌입

민주당 이낙연 의원과 국창근 전 의원이 13일 전남도당위원장 출마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경선 준비에 들어갔다.

이 의원은 이날 전남도당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전남은 두 번의 민주개혁정부가 출범하는데 견인차 구실을 했던 자랑스러운 고장으로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은 잃었던 정권을 되찾아야 한다”며 “도당위원장을 맡으면 전남도당을 2012년 정권탈환의 초석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3선인 이 의원은 “각 지역 내 소수파를 배려하는 등 당내통합을 통해 전남도당을 정권탈환의 디딤돌로 만들겠다”며 “특히 도당 자문기구 성격에 갖는 정책연구모임을 만들고 토론회에 참여하는 지방 정치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정책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직책 당비 50%를 지역 위원회에 환원하고 도와 도당의 당정협의

를 정례화해 당장 눈앞에 닥친 F1 대회 등의 성공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 전 의원은 이날 전남도당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24만 당원들의 권리를 무시한 채 일부 의원들의 합의 추대로 위원장을 결정하는 것에 분개한다”면서 “기득권과 비민주적 담합 정치를 차단하고 당원이 주인 되는 주권정당으로서의 권리를 당원들에게 돌려 드리겠다”고 밝혔다.

15대 국회의원을 지낸 국 전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은 중앙정치에 힘을 쏟아야 하고, 도당은 지방분권시대에 맞게 지역에서 뿌리를 두고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운영해야 한다”며 “사심없는 마음으로 도민과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소중히 지키고 높이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당위원장 경선은 오는 17일 오후 2시 화순 하나울문화센터에서 유권자인 대의원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강운태 시장 전통시장 방문 강운태 광주시장은 13일 부인 이덕희 여사와 함께 광산구 송정시장을 찾아 제수용품 등을 직접 구입하면서 물가를 점검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광주시제공>

정가 라운지

김재균 “서구청장 후보 이달내 선출”

민주당 김재균 광주시당위원장은 13일 서구청장 재선거와 관련해 “주민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고 공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달 안에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서구장 조영택 의원, 서구를 김영진 의원, 비대위 박지원 대표 등과 충분히 상의를 해야한다”고 전제한 뒤 “7·28 남구 보궐선거 때 민주당 후보를 늦게 선출해 혼란을 겪었고, 선거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민주당 후보가 난립하는 것과 관련해 “(토론회 등을 거쳐) 컷 오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소통을 통해 좋은 후보가 선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 선관위는 “애초 전주인 서구청장 당선자가 사직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권위된 경우에 해당하는 보궐선거였으나, 이후 전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고 상고를 포기해 당선무효 형이 확정됨에 따라 보궐선거가 재선거로 바뀌어 치러지게 됐다”고 밝혔다.

시 선관위는 “서구청장선거의 경우 재선거로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선거일정이 바뀌거나 선거운동방법 등의 차이는 없다”고 밝혔다.

임우진 前부시장 서구청장 재선 출마

임우진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10·27 광주 서구청장 재선거 출마를 위해 13일 민주당에 공식 입당했다.

임 부시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자, 정통 야당인 민주당에 입당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오는 10월 27일 치러지는 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임우보하여 청렴하고 검증된 자치행정전문가인 제가 서구를 변화와 희망의 장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 부시장은 14일 오전 예비후보 등록을 한 뒤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27 서구청장 재선거에 공식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조용진 시기획실장 서구청장 도전

조용진(57) 기획조정실장(2급·공무원)이 급주 중 명예퇴직하고 광주 서구청장 재선거에 출마한다.

조 실장은 13일 강운태 광주시장에게 “33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체득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서구민을 위해 봉사하는데 마지막 정열을 쏟고 싶다”며 명예퇴직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 실장은 지역 인사들을 두루 만나 여론을 청취한 뒤 오는 16일 출마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 실장은 1977년 기계직 8급으로 공직에 입문해 광주시에서만 33년간 근무해 고위공무원단에까지 오른 몇 안 되는 ‘토종 공무원’으로 꼽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U대회 선수촌 이주대책 광주시가 수립해야”

서구의회 의원들 주장

광주 서구의회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들은 13일 “2015 하계 U대회 선수촌 건립과 관련해 광주시가 공공관리제를 도입하고 철거민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또 “재건축사업으로 2012년 10월부터 2년에 걸쳐 4000세대가 이사를 해야 함에 따라 심각한 주택 전세난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218세대에 달하는 기초생활보조대상자들에 대한 이주대책을 현실성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정적인 지원과 절차를 도와주는 것이지, 모든 진행은 주민들이 해나가야 한다는 입장만을 피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가적 행사를 치르기 위한 공공적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마땅히 공공관리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버님, 어머님 사랑합니다!”

사랑은 작은 관심의 실천입니다.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십시오.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 마음 속에서만 땀몰던 사랑한다는 말, 3분이면 충분합니다. 사랑은 작은 관심의 실천입니다. 삶의 즐거움은 누군가의 억지말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직접 느끼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은 몸과 마음에 건강을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국제약품은 그 사랑의 힘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www.kukjepharm.com

CE

코엔자임 Q10 함유 항산화영양제

비타민 A, C, E의 보급

- 육체피로, 임신 수유기 병중·병후의 체력 저하시, 노년기
- 눈의 건조감의 완화, 야맹증
- 햇빛·피부병 등에 의한 색소침착(기미, 주근깨)의 완화, 잇몸출혈·비출혈 예방
- 알츠하이머병 및 갱년기시 다음 증상의 완화: 아게·목결림, 수직지림·수족냉증

이연의 보급

국제-에이스
큐텐 연질캡슐